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4년 09월 22일
(월요일)

강북신문 4면



행정보건위원회 의원들이 미아6구역 복합청사 예정부지를 방문해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 행감에 따른 현장방문 실시

미아8구역 공공청사 부지 현장 등 이틀간 차례로 방문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구본승)는 지난 18일, 19일 이틀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활동의 일환으로 18일에 미아6구역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 현장과 미아8구역 공공청사 부지 현장을 19일은 오동골프클럽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첫날 삼각산동의 행정, 문화, 복지의 중심역할을 할 미아6구역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 현장(미아동813-3)에 행정보건위 소속 의원 6명 전원이 참석해 구청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그동안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복합청사 및 공공청사 건립 예정 부지와 삼각산동 주민센터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삼각산동 복합청사는 강북구 미아동813-3(미아뉴타운 6구역내) 일원에 조성되는 연면적 2,367.32㎡ 대지 1,500㎡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되며, 사업비 67억3천700만원을 들여 2015년 8월 착공하여 2016년 12월경 준공 및 개관 예정이다.

현재 삼각산동 주민센터는 건물을 임시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미

아6동과 7동이 통합한 이후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하기에는 협소해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다.

이에 구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높아가는 복지·문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 기능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도서관, 자치회관 등을 포함한 복합 문화복지 공간으로 새로운 청사 건립을 추진하게 됐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이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현장확인 점검을 마친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의원(구본승, 김영준, 장동우, 이백균, 이정식, 강선경)들은 미아8구역 공공청사부지에 비해 미아6구역 복합청사 예정부지가 협소함을 못내 아쉬워 했다.

또한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삼각산동 임시청사에 매월 450만원의 임대료 납부를 생각하면 빠른 시일 내에 청사이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미아8구역 공공청사 예정부지 활용하는 방안에도 대하여도 주변권역을 고려하였을 시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라며, 공공청사

활용방안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필요시 매각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둘째날에는 오동골프클럽 운영현황을 오동골프클럽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시설을 둘러본 후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중간에 비어있는 자리가 제법 있는데 성수기 시간대가 연제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으며, 성수기와 비수기간 편차를 채울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주차장 공간이 협소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있어 주차장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기계식 주차타워 등을 설치하여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런지에 대하여도 질문을 하였다.

복합청사 건립 추진을 통해 주민에게 한발 더 가까이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희망강북을 실현하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장중심의 활동을 통해 원활한 업무추진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문제점과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동북일보 4면

행정보건위원회 이틀간의 현장 활동 방문

“의정활동에 필요한
현황 직접 파악하고,
문제점과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구본승)는 지난 18일, 19일 이틀간에 걸쳐 제182회 강북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의 일환으로 18일에 미아6구역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 현장 및 미아8구역 공공청사 부지 현장과 현 삼각산동 주민센터에 이어 19일은 오동골프클럽을 방문하였다.

오동골프클럽 운영현황을 오동골프클럽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시설을 둘러본 후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

은 중간에 비어있는 타석이 제법 있는데 성수기 시간대가 연제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으며, 성수기와 비수기기간의 편차를 채울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있어 주차장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기계식 주차타워 등을 설치하여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내었다.

오동골프클럽은 강북구 오현길

117(번2동 122-10외 1필지)에 소재한 곳으로 2005년 3월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직영 전환되었으며, 대지 18,596㎡ / 건평 2,121㎡로 지상3층 / 72타석, 비거리 230야드의 규모의 시설로 연중 무휴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호화스포츠·품격스포츠』라는 평을 받고 있는 스포츠인 반면, 평일 주5일이용 시 1개월 남성 22만원, 여성 20만원의 이용료로 주간 90분, 오후6시 이후 80분 동안 이용할 수 있다고 오동골프클럽 관계자 측은 밝혔다.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활동 중 “현장중심의 활동을 통해 원활한 업무추진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문제점과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jej1718@naver.com>

미아6구역 삼각산동 복합청사 및 공공청사 건립 촉구

“
하루 빨리 주민들의 불편
해소 위해 만전을 기해 주길
”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의위원회(위원장 구본승)는 지난 18일 제182회 강북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의 일환으로 18일에 미아6구역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 현장 및 미아8구역 공공청사 부지 현장과 현 삼각산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였다.

삼각산동의 행정, 문화, 복지의 중심 역할을 할 미아6구역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 현장(미아동813-3)에 행정보건의위 소속 의원 6명 전원(구본승, 김영준, 장동우, 이백균, 이정식, 강선경)이 참석해 구청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그동안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복합청사 및 공공청사 건립 예정 부지와 삼각산동 주민센터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삼각산동 복합청사는 강북구 미아동 813-3(미아뉴타운6구역 내)일원에 조성되는 연면적 2,367.32㎡ 대지1,500㎡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1,2층에 동청사, 3,4층에 어린이 도서관 건립이 되며, 사업비 약67억 원(구비 32억, 시비 23억, 국비 12억)을 들여 2015년 8월 착공하여 2016년 12월경 준공 및 개관 예정이다.

현재 삼각산동 주민센터는 건물을 임시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미아6동과 7동이 통합한 이후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하기에는 협소해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다. 이에 구

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높아 가는 복지·문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 기능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도서관, 자치회관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복지 공간으로 새로운 청사 건립을 추진하게 됐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이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현장 확인 점검을 마친 행정보건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미아8구역 공공청사부지에 비해 미아6구역 복합청사 예정부지가 협소함을 못내 아쉬워했다.

또한 행정보건의위원회 위원들은 삼각산동 임시청사에 매월 450만원의 임대료 납부를 생각하면 빠른 시일 내에 청사이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미아8구역 공공청사 예정부지 활용하는 방안에도 대하여도 주변권역을 고려하여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라며, 공공청사 활용방안을 신중히 검토 후 필요시 매각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은주 기자 je1718@naver.com>

시사프리 4면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장방문’ 실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의위원회(위원장 구본승)는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에 걸쳐 제182회 강북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의 일환으로 18일에 미아6구역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 현장과 미아8구역 공공청사 부지 현장을 19일은 오동골프클럽을 차례로 방문했다.

첫날인 지난 18일에는 삼각산동의 행정, 문화, 복지의 중심 역할을 할 미아6구역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 현장(미아동813-3)에 행정보건의위 소속 의원 6명 전원이 참석해 구청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그동안 추진현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복합청사 및 공공청사 건립 예정 부지와 삼각산동 주민센터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삼각산동 복합청사는 강북구 미아동813-3(미아뉴타운 6구역내)일원에 조성되는 연면적 2,367.32㎡ 대지1,500㎡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되며, 사업비 6,737백만 원을 들여 2015년 8월 착공해 2016년 12월경 준공



및 개관 예정이다.

현재 삼각산동 주민센터는 건물을 임시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미아6동과 7동이 통합한 이후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하기에는 협소해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다.

이에 구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높아 가는 복지·문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 기능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도서관, 자치회관 등을 포함한 복합 문화복지 공간으로 새로운

청사 건립을 추진하게 됐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이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현장확인 점검을 마친 행정보건의위원회 소속 의원(구본승, 김영준, 장동우, 이백균, 이정식, 강선경)들은 미아8구역 공공청사부지에 비해 미아6구역 복합청사 예정부지가 협소함을 못내 아쉬워 했다.

또한, 행정보건의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삼각산동 임시청사에 매

월 450만원의 임대료 납부를 생각하면 빠른시일내에 청사이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미아8구역 공공청사 예정부지 활용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주변권역을 고려하였을 시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라며, 공공청사 활용방안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필요시 매각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둘째날인 지난 19일에는 오동골프클럽 운영현황을 오동골프클럽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시설을 둘러본 후 행정보건의위 소속 의원들은 중간에 비어있는 자리가 제법 있는데 성수기 시간대가 언제인지에 대해 질문을 했으며, 성수기와 비수기간 편차를 채울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주차장 공간이 협소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있어 주차장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기계식 주차타워 등을 설치해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다.

유영일 기자

강북구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

7대 첫 행감 의원들 주요 관심사 집요하게 캐물어



▲ 삼각산동 복합청사 부지를 직접 살피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의원들.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지난 15일부터 강북구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 들어갔다. 15일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구본승)는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의 민원여권과를 대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주민생활국의 주민생활지원과와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첫째 날 감사를 시작으로 일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의원들은 제출된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며 질문을 쏟아냈고 감

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민선 6기 시작과 관련해 지난 5기의 구정 전반을 돌아봤고 민선 6기의 관심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정보건위원회는 감사 4일차인 18일에 상임위원들이 직접 감사 관심 대상인 삼각산동 복합청사 부지를 방문해 구청 측에 집중적인 질문을 쏟아냈다. 의원들은 이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며 복합청사 부지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7대 의회 활동 초반 감사활동을 펼친 의원들은 “의회가 본격적으로 열린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라 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지만 부족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감사에 임했다”면서 “앞으로 민선6기가 내건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잘 다가가는지 꼼꼼히 살펴봐 집행부에 힘을 실어줄 것은 실어주고 잘못 나가는 것은 지적하는 등 더욱 충실한 강북구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